

기행문

백두대간 따라, 길 따라

—— 유 상 식 회원 (前 경찰청 차장)



‘한반도 걷기 5000리’를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해 오던 차 일차 구간인 땅 끝마을(토말)에서 통일전망대까지 2500리(약 1000Km) 걷기를 끝마쳤다.

묵은 체증이 해소된 듯 산뜻한 기분이다. 지금에야 북한을 거론하는 것은 대중화되었지만 한때는 북한을 마음속에 품거나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 되던 시절이 있었다.

변화라면 엄청난 세월의 변화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품이다.

그러나 누구도 한반도의 품속에 마음대로 안길 수 없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 나만의 성경일까! 이제 남북화합과 통일 열망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고, 북한산 상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남쪽의 기업이 북한에 터를 잡는 현실에서 내 땅 내 조국을 당당하게 가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나를 견도록 부추겼다. 우선 보행이 가능한 남쪽 땅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방방곡곡 금수강산을 완성하고, 또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 보고 남은 세월을 곱씹어 보는 삶의 길도 걷고 싶었다.

두 사람의 동행자와 함께 걸었다. ‘한반도 통일 열망과 국토 사랑 현장 답사’를 명분으로 하고, ‘깨어있는 삶을 위한 심신수행’을 화두로 걸었다. 하루 팔십여리를 걷기로 하고 한달을 예정했다. 내친김에 한반도의 골격인 백두대간을 걸 동무 삼아, 가장 가까이 하면서 걷기로 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상황은 북한을 자유로이 갈 수 없기에 마무리는 어느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해의 8월 15일로 정했다. 내 생애에서 완성되기를 절실히 소망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두고, 그 먼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이 불에 덴 것 같이 화끈거렸다. 발가락에서 허리까지 관절 마디마디가 빠근했다. 오르막, 내리막, 꼬부랑길을 셀 수도 없이 걸었다.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에 공포감도 수 없이 느꼈고, 매캐한 매연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온 천지에 눈 쌓인 길도 걸었고, 때늦은 폭설도 맞았다. 빗 길도 걸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온 몸을 밀어 부쳐도 걸었다. 사잇길로 가다 길을 잃고 길 아닌 길도 걸었다. 산길도 걷고 들길도 걸었다. 유년시절 고향을 연상하며 보리밭도 걸었다. 걸으면서 열 네 번의 백두대간을 넘 나들었고, 두 번의 백두대간 산행도 했다. 6개도 27개시, 군을 지나쳤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실감했다. 걷는 동안 체증이 내리기는 했지만 잔병은 없었다. 발에 물집이라도 생기면 걷기가 어렵기에 매일 밤마다 발관리에 정성을 쏟았다.

걸으면서 보는 자연경관은 탄성의 연발이었다.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주마간산격으로 보던 풍광과는 느낌과 감동이 달랐다.

쪽빛 바다를 끼고 해안선을 굽어보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원근 연안의 윤치! 심산유곡 청정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치고 소리내며 정적을 깨뜨리는 포말들! 봄 기운에 새순을 뿜쭉 내밀었다가 일진광풍에 화드득 놀란 나무들!

가파른 협곡에 붙어 선 낙엽수들이 돌풍에 울부짖는 광음!

하얗게 눈을 덮어 쓴 긴긴 백두대간의 위용!

산간 마을 어귀, 정자 주변, 시냇가에서 수백 년도 넘게 만가지 자연을 간직한 듯한 고목들!

지구 역사와 더불어 활기고 깎인 온갖 물형의 산위와 계곡의 바위들!

고요하다 못해 음량이 범쑈 듯한 산촌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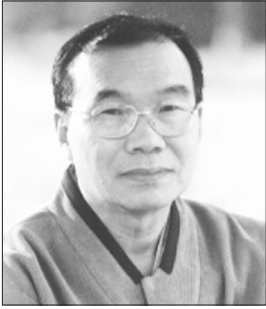
경첩이 지났다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수백마리 개구리들의 시끌벅적한 합창!

이 모든 정경들은 삶에 찌든 나에게 경이로움이었다. 남해의 점점도서, 동화호의 명정지서, 월성계곡의 십삼경, 우람한 소백산봉, 인삼으로 풍성한 풍기, 첩첩산중의 구구치 계곡, 오대산의 울울창창, 도로 이기에는 너무 조잡한 59번 국도(남대천 상류), 할백산상의 일망무제, 한계령의 천인단애, 남설악의 만학천봉, 용매리 북천의 청정유수, 진부령의 구절양장, 동해의 망명대해, 금강산에서 펼쳐 나온 해금강의 미경은 걸어보지 않고는 그 진수와 진미를 만끽할 수 있을까? 섬진강·금강의 물줄기가 수분령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대고 있는 형국이나, 낙동강·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시 금대봉 남쪽에 있어 묘한 여운을 주었다.

그러나 걸으면서 보는 경관이 갑탄만은 아니었다. 누년에 걸쳐 농토와 산야를 할퀴고 간 수마의 흔적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노년들만의 농사꾼들, 학동이 없어 비어진 폐교, 살던 사람이 떠난 빈집, 수확을 포기한 채 윗세느스럽게 방치된 무·배추밭, 폐허가 된 폐광들의 초라한 모습은 나그네의 심사를 우울하게 했다. 찾는 이가 없어 영업을 못하는 소도시 점포들의 쓸쓸한 풍경은 지역경제가 몹시 파폐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농촌이 융성해야 국토가 아름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반도를 마음 내친 데로 다 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몹시 저리다. 통일하자면서 극히 제한된 남북 왕래가 왜 이리도 시린가! 북녘을 향해 남쪽 땅끝 바다에서 떠 온 바닷물을 북쪽 끝마을(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리)언저리 두만강 물에 부을 수 있도록 기원제도 올렸다. 걷기를 작정했을 때, 걷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정신이나’, ‘대단하다’고 우러 반, 격려 반으로 기운을 채워주었다. ‘삶의 방식은 다 달라도 자기만의 깨어 있는 삶의 약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연주자가 만년의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주인’ 이리라.

名士칼럼



경찰직과는 연관이 없이 살아가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평소엔 한국 경찰에 관하여 느끼는바 몇 가지를 적고 싶다. 경찰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적은 봉급에 너무도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가끔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로로 쓰러지게까지 하여서 되겠는가? 그런 과로 중에서도 불꽃없는 처우를 잘도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살림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경찰관의 봉급만큼은 두드러지게 인상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경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권위가 너무나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위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위는 오히려 높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의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듣기 대인대 과로로 쓰러지게까지 하여서 되겠는가? 그런 과로 중에서도 불꽃없는 처우를 잘도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살림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경찰관의 봉급만큼은 두드러지게 인상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경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권위가 너무나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위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위는 오히려 높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의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듣기 대인대 과로로 쓰러지게까지 하여서 되겠는가? 그런 과로 중에서도 불꽃없는 처우를 잘도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살림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경찰관의 봉급만큼은 두드러지게 인상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경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권위가 너무나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위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위는 오히려 높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의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듣기 대인대 과로로 쓰러지게까지 하여서 되겠는가? 그런 과로 중에서도 불꽃없는 처우를 잘도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살림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경찰관의 봉급만큼은 두드러지게 인상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경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권위가 너무나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위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위는 오히려 높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의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듣기 대인대 과로로 쓰러지게까지 하여서 되겠는가? 그런 과로 중에서도 불꽃없는 처우를 잘도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살림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경찰관의 봉급만큼은 두드러지게 인상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경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권위가 너무나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위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위는 오히려 높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의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듣기 대인대 과로로 쓰러지게까지 하여서 되겠는가? 그런 과로 중에서도 불꽃없는 처우를 잘도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살림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경찰관의 봉급만큼은 두드러지게 인상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경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권위가 너무나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위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위는 오히려 높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의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듣기 대인대 과로로 쓰러지게까지 하여서 되겠는가? 그런 과로 중에서도 불꽃없는 처우를 잘도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살림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경찰관의 봉급만큼은 두드러지게 인상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경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권위가 너무나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위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위는 오히려 높다.

경찰의 권위와 봉사정신

-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 할 수 있어야 -

——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 대표·두레교회 담임목사)

그런 권한 중에 경찰 자체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분들은 한국 경찰의 수준이 아직은 그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도 들은 적 있으나 그 문제는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권한과 처우가 주어져야 좋은 경찰관들이 모이는 것이지 탓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경찰대학에 가는 입학생들의 수준이나, 요즘 들어 경찰에 입문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권한과 처우가 주어진 후에 시민들에게 봉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성경 중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3가지 일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글을 읽는 경찰관들께서 자신이 다음에 적는 3가지 종류의 일꾼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샅꾼 일꾼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샅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려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2005학년도 후기 마약범죄학 석사 과정 신입생 모집 (야간·석사 4학기 과정)

■ 학과설립목적 : 마약범죄수사 전문능력, 마약중독자 치유 재활 등 21세기 특성화 교육

■ 지원자격 :

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나. 디지털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자
다.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학위 취득자
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
마. 외국 대학에서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명, 연구과정 ○○ 명

■ 교과목 : 범죄심리학, 마약과 건강, 조직범죄론, 마약범죄수사론, 마약사법행정론 등 16개 과목

■ 수업연한 : 4학기, 주 2회 수업(화·목) 18:30 ~ 22:00

■ 학위취득후 진로 : 마약퇴치 관련 기관 전문능력 적용, 박사학위 취득 후 마약범죄학, 경찰행정학과 등 개설 대학교 교수 요원 진출가능

※ 학위 : 마약범죄학 석사(마약범죄학 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유일한 대학교)
■ 특 전 : 석사학위, 관련 공무원 근무 평점시 고과 점수 인정
※ 경찰·군·수사기관 등 현직 공무원은 수업료 20% 감면
※ 육·해·공군 학군 재휴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50% 혜택

■ 자격증 : 마약지도사

■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원서교부	2005. 5.09(월)~5.18(수)	• 본교 정문 수위실, 본 대학원 교학과 또는 홈페이지 내려받기
원서접수	2005. 5.09(월)~5.18(수) (09:00~20:00)	• 본 대학원 교학과 (화도관 205호) •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접수(e-mail : sokyo@kw.ac.kr) • 토요일·일요일 휴무
전형일시	2005. 5. 21(토) 14:00	• 각 전공 주임교수실(호실은 별도공지) • 합격자 발표안내는 추후 공지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복지대학원 교학과로 문의 및 홈페이지 참고 바람

주소 : (139-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정보복지대학원 교학과 TEL : (02)940-5411, 940-5412 FAX : (02)940-5413 http://isw.kw.ac.kr 담당교수 : 염건형 ☎010-9918-1500